

## 新聞記事에서 小説까지 : 胡仿蘭 事件 分析

夏曉虹\*

역: 윤순\*\*

1. 新聞記事에서 事件까지
2. 名分的 報告와 實際的 監察
3. 放足으로 學校設立을 쟁취하다
4. 先覺에서 庸俗으로 變化

### 초록

본고는 1907(광서 33)년 강소성 술양현이라는 한 외진 마을에서 일어났던 가정비극(후팡란이라는 여성이 전족을 풀고 여학당에 입학하려는 것 때문에 시부모의 핍박으로 마침내 독약을 받아먹고 죽게 된 사건)이 만청시기라는 특수한 시공간 속에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은 어떻게 담론을 생산하는 주제들에 의해 뉴스화되고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굴절을 겪고 변형되는 것을 추적한 논문이다. 교육단체, 매스컴, 소설가, 극작가 등등 계몽기에 처한 중국의 지식인들이 각기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이용한 결과, 放足으로 학교 설립의 계기가 되는가 하면, 센세이셔널한 매스컴의 속성은 선각적 신여성 후팡란보다 그 시어머니의 잔인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극 『足冤』은 후팡란을 비장한 의협녀로, 또 소설 『중국의 女銅像』에선 신여성이지만 구법을 따르는 '新中守舊'의 인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여동상』은 당대 독자대중의 기대지평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변혁기 계몽주체의 성급한 의욕이 후팡란을 선각자에서 庸俗化로 다른 통속소설로서 한국 개화기 신문소설과도 비슷한 맥락이라 하겠다.

\* 北京大 교수

\*\* 청주대 교수

1907年 4月 24日(光緒 33年 음력 3月 12日), 江蘇省 沭陽縣 上馬台 마을에 사는 徐嘉楙의 며느리 胡仿蘭이 시부모의 강압으로 독약을 먹고 사망하였다. 舊式家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비극은 그 해 신문의 발표를 통해 대중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大事件이 되었다. 여러 종류의 세력들이 작용하여 이 사건으로 하여금 며느리를 학살했다는 간단한 해석을 훨씬 뛰어넘어, 晚淸社會의 한 문화를 해석하는 經典적인 事例가 되게 하였으니, 이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 1. 新聞記事에서 事件까지

고대 儒家들이 표방했던 “忠孝”관념은 역대 통치자들의 부단한 宣揚을 통해 사회의 統治思想이 되어 民間에 깊이 스며들었다. 極言하면, “임금이 신하에게 죽으라면 신하는 죽지 않으면 안 되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으라면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이다. 이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오는 교훈은, 임금과 아버지가 신하와 아들의 生死를 결정하는 대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近代 이전의 중국에서 이것은 여전히 불변의 진리였다. 歷史가 20세기 初에 들어서면서, “3000년래 未曾有의 大變化”의 출현으로 전통적 가치체계, 윤리도덕, 사회질서들이 분분히 의심을 받게 되었다. 胡仿蘭의 死因은 이로써 家族規範의 한계를 깨고, 媒體의 간여 하에서, 묻혀져 있던 쌓이고 쌓인 억울함 속에서 浮上하여, 大衆이 주목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뉴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沭陽縣은 江蘇省 북부에 위치하며 海州에 예속되어 있는데, 같은 省의 松江府 上海縣과는 南과 北으로 대치되어 있어 氣風이 뚜렷하게 서로 달랐다. 훗날 胡仿蘭 사건에 진력한 吳鐵秋는 沭陽 學界의 암흑과 부패에 통분하여 아래와 같은 결연한 말을 했다.

나 沈陽人, 沈陽人 되기 수치스럽고, 감히 술양인 되지 못하겠다. 무릇 선비에게는 지혜로운 자·어리석은 자·현명한 자·불초한 자 없이, 모두 龍門에 오르고 千里馬 꼬리에 붙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자란 몸으로 만약 거기 관련되고 뒤섞인 자 있다면, 당신들 같은 오염된 자들을 미워하고, 당신들 같은 악독한 자들을 원망하여, 그 이름을 들먹일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孟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羞惡之心과 是非之心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沈陽人 되기 수치스러워하고 감히 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吳氏가 江蘇教育總會에 보낸 편지에서 묘사한 것에 따르면 沈陽의 “취약하고 깊은 병폐”는 江蘇 여러 縣중에서도 으뜸이었다.

八股時代에는 仁在堂과 目耕齋 이외의 책은 읽지 않았고, 科學時代에는 科學를 폐지하고 學堂을 세우는 것을 상스럽지 못한 일로 여겼다. 집을 떠나 유학하는 것을 모험으로 여겼고, 단체를 만들어 團報를 읽는 것을 異端으로 여겼다. 일의 진말을 알려 하지 않고, 未聞의 소식을 듣거나 처음 보는 것을 보면 그 즉시 “이것은 洋教다 洋教야, 우리 당당한 대국 중국이 이런 일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역대의 관리들은 위에서 속이고(沈陽에 학당을 설립한 것은 人才를 기르고 文明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地方官 자신의 考課 성적을 위한 것이었다. ……), 학당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밑에서 속여(沈陽 副訓導는 끝내 부임해 오지 않았고, 正教官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 나이가 60여세로 연로하고 두려움이 많았고, 舊學問이 무엇인지 모르고, 新學問에 대해서는 더욱 몰랐으며, 품성이 웅졸하고 비열하여, 차마 끝까지 서술하지 못하겠다), 속되고 천박한 학자들에게 핑계거리만 보태주어, 父兄과 子弟들 발전에 끝없는 걸림돌이 되었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吳氏는 “술양에는 지방유지는 있되 官吏가 없었으니, 실은 백성은 있되 선비는 없는”<sup>1)</sup> 것이라고 한 것이다. 선비계층의 消失은 바로 沈陽 풍습의 폐쇄성과 頑固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吳鐵秋의

1) 「沈陽吳君鐵秋致教育總會書」, 『申報』(1907.5.20).

이 편지는 胡仿蘭 사건이 신문에 발표되기 전에 씌어진 것으로, 원래는 胡氏의 죽음과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제기되어, 오히려 이 시기에 발생한 “纏足풀기(放足)를 위해 시부모에게 죽음을 강요당한 奇聞”<sup>2)</sup>이 傳奇성을 잃게 되어, 더욱 사람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沅陽의 進化거부로 인해, 吳鐵秋 같은 先覺者가 江蘇教育總會에 가입하여 地方風習을 개방하고자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女性界에도 胡仿蘭이 출현하였으니, 궁벽한 시골에도 뜻밖으로 新思想을 가지고 있는 先覺女性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져야 할 일이다. 時代風潮를 거역할 수 없음은 이로써 입증할 수 있다.

胡仿蘭 사망소식의 공개적인 신문보도가 형사사건으로 된 것은 얼마간 우연한 요소가 있었다. 胡氏는 4月 24日에 사망했고, 上海 신문지상의 발표는 그 시초가 그 해 6月 14日字 『新聞報』와 『申報』로 사망 1個月 半 후였다. 이 사건을 폭로한 사람은 宋康復으로 본래는 위임을 받고 沅陽에 파견되어 河務를 처리하던 사람이었다. 그 이전에는 湖北天足會(天足: 纏足하지 않은 본래의 발)를 창립한 경력이 있어,<sup>3)</sup> 줄곧 “잠재된 도덕을 선양하고, 완고한 자들을 제거하여 開化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다. 宋氏는 음력 3월에 沅陽에 도착하여 胡仿蘭이 “纏足を 풀어 시부모에게 죽음을 강요당한 사건”<sup>4)</sup>을 듣고, 가슴 가득 義憤이 일어 스스로 坐視不管할 수 없었다. 그는 胡仿蘭을 위해 雪冤할 것을 결심하고 가장 효과 있는 지름길인 매체에 폭로해서 여론의 注目을 이끌었는데, 신문은 이로써 으뜸가는 도구가 되었다.

宋康復은 胡仿蘭의 사망 보도를 江蘇教育總會에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 중 胡氏를 서술한 부분은 小傳으로 꾸며 읽어도 무

2) 이것은 『新聞報』(1907.6.14)가 宋康復의 서한을 발간할 때 사용한 副題이다.

3) 『警鐘日報』1904年 6月 25日字에 『天足會의 擴張』이라는 소식이 있어, “湖北天足會는 宋康復의 창립을 거쳐 각처에 分會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4) 「江蘇教育總會가 沅陽 宋敦甫 觀察의 서한을 받다」(徐씨가 放足を 위해 시부모에게 죽음을 강요당한 奇聞의 일로), 『新聞報』(1907.6.14).

방하겠다.

沭陽 西鄉 胡家邑 지방에 사는 胡象九의 누이동생은 이름이 仿蘭이고 字는 普芳이다. 어려서 本邑 上馬台 지방으로 시집가 徐嘉楸의 長子 沛恩의 부인이 되었다. 18세 때 徐門에 시집와 이미 10년이 넘어 일남이녀를 낳았다. 그녀는 다른 것은 없고 다만 책을 너무 좋아한 까닭에 시부모의 환심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근래에 책과 신문이 각지에 널리 퍼져 氏는 비녀 등 패물을 팔아 사서 읽기를 좋아했는데, 책들은 『瀛寰全志』와 東西洋歷史 및 算學·物理·修身의 各教科書 들이었고, 신문은 『時報』 『匯報』 『東方雜誌』와 여러 俗話報 등으로, 바느질하는 틈틈이 정성을 다해 읽었다. 徐家는 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논밭이 들에 두루 널려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신문이 무엇인지 몰랐고 시어머니는 책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新式洋裝 책을 보면 더욱 코웃음치며 말하기를: “진진하게 서양책을 읽으니 洋教를 따르려느냐?” 하고 더욱 미워했으나 끝내 그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반드시 죽음에 처해야만 일이 끝나듯, 纏足을 푸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氏는 몸은 비록 연약했지만 뜻은 지극히 원대하였다. 평소 女學 振興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 늘 말하기를 “女學을 진흥시키려면 반드시 女害를 제거해야 한다. 女害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전족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전족 푸는 일은 나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상엔 자신이 몸으로 슬선하지 않고 타인의 그림자만 따라 다니는 자를 나무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전족 푸는 것(放足主義)을 실행하고, 시시로 『天足叢書』 등의 책으로 가족과 친척자매들에게 전족 풀기를 권고하니, 자매들이 행하여 그 德의 영향을 받은 이가 십여명이었다. 차차 氏의 동서들과 남편의 가족들도 빠르게 그 기미가 나타났다. 그러나 시부모는 怨望이 더욱 깊어져 몹시 언짢아 하며 미워하는 것이 마치 큰 원수를 진 것 같았다. 氏가 전족 푸는 것을 家道가 상서롭지 못하게 된 것으로 여겼고, 더욱이 氏가 타인에게 放足하라고 권하는 것을 妖言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라 여겼다. 또 말하기를, 온 몸 사람이 放足하지 않았는데 氏 혼자 放足하여 사람들의 笑罵를 야기했으니 이것은 祖宗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다. 또한 氏가 이미 放足을 했으니 그 소생인 딸도 전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아들은 더욱 전족한 여자를 맞아들이지 않을 것

이다. 이 잘못된 것이 후세에 전해지면 화가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氏를 죽일 결심이 커졌다.

처음에는 남몰래 음모를 꾸며 桎梏主義를 사용해 흉포한 종을 시켜 강제로 다시 전족하려 하였고, 이어서는 전족은 할 수 있으나 입은 막을 수 없고, 몸을 묶을 수는 있으나 마음은 묶을 수 없다고 여겨, 곧 桎梏主義를 鳩毒主義로 바꾸었다. 그리고 은밀히 말하기를 “풀을 베는 것은 뿌리를 제거함만 못하니, 오늘날 怪因을 조금이라도 남겨 두면 타일에는 여전히 惡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단지 몇 백 목숨의 돈을 얻기만 한다면 우리 아들이 어찌 좋은 아내 없을 것을 걱정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리하여 氏를 밀폐된 방에 가두고 인도藥 한 병을 주어 자결하도록 하고는 음식을 4일이나 주지 않았다. 이것이 3月初8日에서 11일에 이르는 일이었다.

이 때 徐씨 할머니가 있어 평소 氏를 위해 일을 하였는데, 수일 동안 흐느껴 울며 시부모가 감금했기 때문에 구해 내지를 못하고 있었다. 방비가 조금 소홀해지자 몰래 氏의 집에 편지를 보내 빠른 가마를 보내 데려가기를 부탁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죽어 시간에 대지 못할까 두렵다고 했다. 氏의 오빠가 가마꾼과 길을 떠났는데, 저녁에 빈 가마로 돌아와, “徐家에서 말하길, 죽은 사람은 메고 돌아갈 수 있어도 산 사람은 데려갈 생각을 말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氏의 오빠는 좋은 계책을 내어, 媪父를 움직이는 힘이 媪母에게 있으므로, 媪母가 잠시 집을 떠나면 媪父의 기세가 조금 사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媪母의 오빠 稔의 집이 성안에 있었는데, 만약 그가 媪母를 데려가 사정을 하면 氏가 살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급히 稔을 부추겨 데려 가도록 했으나 媪母는 가마를 타지 않으며, “나는 大事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성안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嗚呼라! 氏는 孤軍이 포위된 성안에 갇힌 것처럼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말라 버렸으나, 구원의 길은 끊어지고 말았다. 잠시 더 견딜 수는 있지만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 느리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빨리 약을 먹고 죽는 것이 나았으리라. 12일 날 絶命의 글을 써 여러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고별의 말을 남기고, 이날 밤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어 죽었다.<sup>5)</sup>

---

5) 같은 글, 1907年 6月 15日字 『新聞報』에서 채록, 原文은 단락을 나누지 않았음.

문장과 내용이 모두 뛰어난 이 書信은 胡仿蘭이 강압으로 自盡한 원인을 상세하게 서술해 내고 있어 독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기필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야 만 徐家 시부모들의 잔인함과 沒人間性, 특히 胡氏의 오빠와 媿母의 친정오빠가 데리러 갔는데도 마다하고, 꼭 자신의 눈으로 며느리가 죽는 것을 보아야만 만족했던 것 등등은 모두 宋康復의 묘사를 통해 더욱 사람들을 격노케 했다.

신문의 신속한 傳播力과 광범한 독자층의 도움을 통해, 宋康復의 報告는 마치 “하나의 돌로 千層의 파도를 일으킨” 것과 같았다. 宋氏의 문장(節錄 수정한 것을 포함하여)을 발간한 上海의 신문은, 위에서 말한 두 신문사 외에도 『時報』와 『中外日報』<sup>6)</sup>가 있었다. 말하자면 上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大報들은 모두 거기에 개입한 것이었다. 보도의 深化에 따라, 소식을 相通하는 新聞界는 곧 胡仿蘭의 이름을 전국에 널리 퍼뜨려, 北京의 『北京女報』, 『順天時報』, 瀋陽의 『通報』, 『盛京時報』, 심지어는 일본 東京에서 출판된 『中國新女界雜誌』까지도 모두 편폭을 할애하여 胡氏의 죽음에 논평을 가하였다.

각 신문의 추적, 轉載와 토론은 서로 呼應하며 일치된 輿論방향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신문을 통해 民情을 이해하던 지방 大官들도 어쩔 수 없이 신문지상을 빌어 공개적인 태도를 표명하게 되었는데, 당시 兩江 총독이었던 端方이 胡仿蘭의 죽음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표기한 것은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例證이 되고 있다. 宋康復의 書信 발표 10일 후, 端方의 반응 역시 上海에서 정식으로 보도되었다. 서찰의 첫 구절은, “근자에 각 신문이 沈陽 西鄉 胡象九의 누이 仿蘭이 徐嘉楸의 아들 沛恩에게 시집가 아내가 된 기사를 실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였고, 이하는 胡氏의 사건에 관한 서술로 宋康復의 문장을 발췌한 것이었는데, 이것에

6) 『申報』는 「女士가 放足하여 죽음을 강요당한 놀라운 소식(女士放足被逼斃命駭聞)」이라 題함. 줄거리는 신문보도의 어투로 宋康復의 편지를 축소함. 『中外日報』는 「沈陽 胡氏가 放足하기를 위해 시부모에게 강제로 죽은 일을 서술함(述沈陽胡氏因自願放足被翁姑逼斃事)」을 제목으로 함. 1907年 6月 19~20日 발간.

근거하여 “海州督은 沈陽縣에 指示를 내려 실정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범인을 신문하고 죄를 심리하여 상세하게 처리”<sup>7)</sup>하기를 요구하였다. 이후 端方은 江蘇教育總會의 편지에 회답하여 “이 사건은 月初에 신문에서 보았다. 즉시 조사 지시를 내려 처벌하겠다”<sup>8)</sup>고 표명하였는데, 이것은 신문이 ‘뉴스’를 ‘범죄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關鍵的 作用을 한 것을 설명한다.

## 2. 名分的 報告와 實際的 監察

비록 신문이 胡仿蘭 사망사건을 究明하는데 있어 힘을 보태기는 했으나, 前後를 총괄해 보면 실제로는 江蘇教育總會가 그 主動力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江蘇教育總會의 호소와 감독이 없었다면 胡仿蘭의 죽음은 전국을 뒤흔들고 官府를 떠들썩하게 하는 중대 사건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sup>9)</sup> 표면상으로 볼 때, 原名이 江蘇總學會로 1905년에 설립된 江蘇教育總會<sup>10)</sup>는 단지 하나의 지방교육단체에 불과했지만,

7) 「江督이 서찰로 徐胡氏가 女學을 提倡하여 시부모에게 毒死당한 일을 조사함」, 『時報』(1907.6.25). 이 신문은 “沈陽”을 “溧陽”이라 誤植함.

8) 「江督이 徐氏 子婦가 放足 때문에 강제로 죽은 것을 찬양하는 서한」, 『申報』(1907.7.24).

9) 『申報』를 예로 보면, 「女士放足被逼斃命駭聞」을 처음 보도할 때 6월 14日 字 제11版 “瑣事欄(자질구레한 일)”에 실었는데, 6월 25日이 되어서는 「江督, 女士가 放足으로 죽음을 강요당한 사건 조사 지시」가 출현하여, 제2版에 “緊要消息”에 실렸다. 이후, 胡氏 사건과 관련한 문자의 출판 위치는 앞으로 옮겨져 제 4판 “본 도시 주요 소식”에 실렸다. 『時報』도 「江蘇教育總會가 沈陽 宋敦甫 觀察의 서한을 받다」를 처음 출판했는데, 역시 중요하지 않은 제5판의 “投稿”欄에서 보인다. 端方의 서찰은 제3판 “지방소식”에 등재하였는데, 뒤이어 신문에 실린 「江蘇教育總會가 端午帥에게 올리는 글」(沈陽 徐氏가 放足으로 시부모에게 강제로 죽은 일)은 제1판 “중요한 사건”欄으로 도약했다.

10) 沈同芳의 『江蘇教育總會 서한 2편 敘述』은 “江蘇總學會는 乙巳年 秋9월에 발기하여 冬11월에 성립되었다”라고 말했다(『申報』, 1907.9.8).



개혁계층과 지식계층이 날로 활약상을 드러내던 晚淸사회의 특정시기에, 한 분야의 대표자(上海를 중심으로)인 民意機構로서 이미 朝野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의 上海 각 大報들을 열람해 보면, 江蘇教育總會에 관계되는 상세한 動態報告와 높은 신문 게재율이 충분히 이 설을 증명한다.

地方學務를 지도하고 학계의 마음을 반영하던 상용수단으로서의 江蘇教育總會는 그 왕래한 서신들을 부단히 여러 신문지상에 발표하였다. 그 중에는 基層으로부터 온 보고도 있고 관리에게 올리는 보고문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胡仿蘭의 사망소식을 폭로한 宋康復의 서찰도 바로 江蘇教育總會에 보낸 것이었으며, 이것을 總會가 上海의 각 신문사에 공포한 것이었다. 『新聞報』와 『時報』는 같은 날 宋氏의 서찰을 발간했는데, 모두 같은 『江蘇教育總會가 沈陽의 宋敦甫 觀察이 보낸 서신을 받다』로 머릿기사를 썼고, 副題마저도 “전족을 풀어 시부모에게 강제로 죽음을 당한 奇聞의 일로”로 달았는데, 이것은 江蘇教育總會가 제목을 작성하고, 宋氏의 문장을 초록한 원고를 여러 신문사에 전달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다.

宋康復은 總會를 신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일 먼저 通報해줄 것을 물어 왔는데, 『新聞報』 6月16日字 社論 위치에 있는 “論說” 「沈陽 徐氏子婦가 시부모의 강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논함」은 더욱 분명하게 江蘇教育總會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 글은 吳鐵秋의 <沈陽 無紳士·無 선비>說에서 더 나아가, “저 徐氏 시부모들은 蛇蝎이고 호랑이 이리이니 논할 바가 못되고, 단지 沈陽 땅에는 기풍을 개척하는 女豪傑만 있고, 그밖에는 한사람의 선비도 관리도 없음을 닷하노라”라고 했다. 문장 말미에서는 全篇을 총괄하며 개탄하여 말하고 있다.

선비도 관리도 없으니 沈陽은 沈陽이 되지 못하는 구나! 상세히 究明하고 엄격하게 징벌하여, 술양의 선비들을 각성시키고 술양의 관리들을 바로잡아, 이로써 沈陽의 앞날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江蘇教育總會에게 바라는 바이다.

이 말은 그 시기의 輿論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江蘇教育總會에 대해서도 激動케 하는 효과가 있었다.

江蘇教育總會는 과연 輿望을 저버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문책하여 지식계층을 각성시킨 것 외에, 官府를 바로잡는 것에도 힘을 쏟았다. 본회는 즉시 宋康復 報告의 원본 편지를 베껴 兩江 總督 端方에게 보내 “관리를 파견하거나 縣에 지시를 내려 확실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sup>11)</sup>을 요청하여, 결국 端方으로 하여금 이 일에 관여케 하였고, 또 민간단체의 감독기능을 발휘하여 이 사건이 공정한 審理를 받도록 힘썼다. 사실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教育會는 沈陽縣 縣令에게 심각한 不信任을 드러냈었다.

어찌 유독 이邑을 관리하는 자만 전혀 징벌하지 않으려 하고, 學界가 宋에게 보고하고, 본회에 轉報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地方官은 이 여인이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徐氏 시부모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도? 슬픔은 죽어버린 마음만큼 큰 것이 없다.<sup>12)</sup>

官府와 부호가 의기투합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깊던 상황은 중국에서도 역대로 그 예가 적지 않다. 徐家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여 전답이 들에 가득한” 지방부호였다. 만약 현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면 정실에 얽혀 법을 어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江蘇教育總會 같은 민간단체의 출현은 官方을 초월하는 또 다른 힘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 적극적인 개입은 官府에 상당한 制約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官方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꺼릴 수밖에 없었다. 본회는 ‘報告를 ping계삼아 감독하는 방법’으로 시종일관하였고, 끊임없는 신문지상의 발언을 통해 官方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端方이 胡仿蘭 事件을 조사하라고 명령한 얼마 후, 上海 각 학교에서 공부하던 淮安·徐州·海州의 학생 28人是 “이 일은 여성교육에 관계된 것으로 한 개인의 생명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江北에는 막대한 관계가 있다”라는 제

11) 「江蘇教育總會가 端方帥에게 올리는 글」(沈陽 徐氏가 放足하여 시부모에게 강제로 죽은 일로), 『時報』(1907.6.26).

12) 註 11)과 같음.

목 하에 聯名하여 江蘇教育總會에 편지를 보냈다. 端方の 서신 중에 “결국 胡氏が 어떻게 죽었는가, 다른 이유는 없고 단지 전족을 풀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州縣에 확실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고향에 돌아가 직접 탐방하여 이 여인의 絶命書(遺書)를 조사하고, 다른 사정의 有無를 總會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행동은 민단단체가 官方을 감독하고자 했던 自覺意識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비록 兩江總督이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기는 했으나, 學界에서는 여전히 손을 떼지 않으려 했는데, 그 원인을 聯名한 서신 중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地方官만이 조사를 하면, 말단 서기의 손을 빌려 뜻밖의 지역적인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므로, 비록 현명한 장관이 있을지라도 그 진상을 다 밝히지 못하고, 여사의 苦心은 끝내 파문혀 버릴 것이 두려우니, 이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sup>13)</sup>

이른바 서기와 衙屬을 걱정한다는 것은 단지 핑계의 말이고, 筆鋒이 가리키는 것은 실은 縣長이었다. 이후의 사실도 표명하듯, 沭陽 縣令 俞都是 확실히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못했는데, 그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평한 판정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학계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실로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淮安·徐州·海州의 학생들은 4가지 방법을 제출하고 자세히 推敲하였는데, 실은 제1항 “여사의 絶命書(유서)와 慘死한 상황 및 사건 중 다른 緣由의 有無를 조사한다”가 탐방의 本題였고, 나머지 세 가지 조항은 事後處理의 方針으로, 모두 官府에 요청하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제2항은 “조사하여 實情을 알아내, 督憲의 公文 명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였고, 제4조는 “여사의 억울함은 冤寃되었으니, 督·撫·學 3憲이 女士가 放足과 學習追求로 학대를 받은 일 및 이후 어떻게 처리하고 선양할 것인지의 경과를 일괄 공포하기 바란다”였는데, 이는 모

13) 「上海에 유학중인 淮·徐·海 3지방 학생들이 江蘇教育總會에 올리는 公翰」, 『時報』(1907.7.5).

두 江蘇의 최고 행정장관을 정면으로 향해 말하고 있다. 그 세심한 사려는 官方이 이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으니, 비록 “외람된 陳情”이라고 말은 했지만 엄연히 검찰의 책임을 사양하지 않고 있었다.

탐방결과를, 조사자 李垔이 江蘇教育總會에 보내는 報告書 및 宋康復이 總會에 서신을 보내는 형식으로 일반에 공포되었다. 탐방의 가장 큰 수확은 胡象九가 제공한 여동생 仿蘭의 “3월 12일 가마꾼이 가져다 올케에게 준 편지”<sup>14)</sup>로 역시 絶命書였다. 이 편지는 각 신문과 『申報』 『時報』의 친필 影印本 발간을 통해,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서신은 胡氏의 死因에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였고, 宋康復의 진술을 증명해 주었는데, 그 글은 아래와 같다.

올케언니께 : 저는 오늘 죽을 사람이예요. 전일에 시부모가 전죽 쫓는 것으로 인해 수없이 능욕하며, 제가 못되고 나쁜 짓을 해서 조상을 욕되게 하므로 저를 死地에 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기를 탐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아들과 딸이 너무 어려 미련이 남는 거예요. 올케가 사람을 보내 데려가려고 했을 때, 시부모가 고집스레 놓아주지 않을 줄 어찌 알았겠어요. 지금은 학대가 더욱 심해져서, 제가 만약 洋學堂에 들어가 洋教를 따르면 親友들에게 죽도록 욕을 먹을 테니, 저를 살려 두면 끝내 제앙이 될 거라고 저를 굶겨 죽이려고 했고, 지금은 갑자기 강제로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생각건대 저는 徐門으로 시집은 지 근 10년으로, 비록 똑똑하지는 못해도 큰 잘못은 없는데, 전죽을 풀고 學堂에 들어가려던 두 가지 일로 저를 이렇게 만들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의 죽음은 애석하지 않지만, 다만 女塾을 창시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딸도 너무 어려 장래 반드시 전죽할 것이 걱정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슬픔이 가득해져요. 또 여러 자매들 중에서 혹시 저의 이 일을 듣고 돌연 낙심하여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비 오듯합니다. 번거롭지만 靜芝 님께 아우와 冷仙 님께 아우에게, 제가 오늘 다시는 아우

14) 「上海에 유학중인 淮徐海 學界가 함께 추천한 조사원 李垔이 教育總會에 보고한 글」, 『時報』(1907.7.24).

들과 함께 세상에 같이 있지 못하게 되었다고 알려 주세요. 언니도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 동생 仿蘭이 눈물을 흘리며 삼가 告別함. 3月 12日<sup>15)</sup>

이 편지는 사건으로 결정하는 근거로 충분하며, 사실 또한 분명해졌다.  
그래서 李塤은 학생들을 대표하여, 江蘇教育總會 會長이 調查報告書와  
胡仿蘭의 絶命書를 “督憲에게 보내 事件으로 보존케” 하기를 요구하고,  
“학생들이 전에 제기한 여러 조항의 可否를 잘 생각하여, 督憲께서 특별  
히 처리해 줄 것”<sup>16)</sup>도 요청하여, 학생단체의 집착된 干與意識을 드러내고  
있다.

調查報告書와 宋康復의 편지 및 胡仿蘭의 絶命 서신은 모두 江蘇教育  
總會가 신속하게 端方에게 보냈다. “올리며 감찰을 청함” 이외에, 總會는  
더 나아가 “시행을 간절히 요망함”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 관심이 사건처  
리를 감독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端方은 서신을 받은 후  
비록 특별히 회답하지는 않았지만, 教育總會가 “勸善懲惡에 뜻을 같이  
함에 깊이 탄복한다”<sup>17)</sup>고 칭찬하여, 철저히 처리할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급관리가 審理 중에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절하시키는 것을 제  
지할 수는 없었다. 최초로 제시한 徐嘉楸부부를 “목에 칼을 씌워 마을에  
서 조리 돌리고, 큰길에 榜示할 것”<sup>18)</sup>은 결코 시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學界가 일치하여 의결한 ‘벌금을 부과하여 학교를 설립하자’고 한 결과  
또한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江蘇教育總會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에도 재차 端方에게 글을 올려, 회원이 쓴 “沈陽 胡仿蘭의 억울한 죽음  
始末 調查報告”에 의거해서 “벌금을 과해 학교를 세워도 은닉이 없지 않  
다”고 여기며, 다시 판결하기를 제의하였다.

---

15) 『徐氏 子婦가 울케에게 이별하는 글』, 『申報』(1907.11.12).

16) 註 14)와 같음.

17) 『江蘇教育總會가 江督 端午帥에게 올리는 글』(徐氏 子婦가 放足으로 시부모에  
게 강제로 죽은 일로), 『新聞報』(1907.7.22). 또 註 8)과 같음.

18) 註 7)과 같음.

비록 法 밖의 人情으로, 조금이라도 남겨 연로한 시부모를 부양케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진답을 다수 은닉하여 輿論이 이로 인해 더욱 떠들썩합니다. 官府가 밝게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서, 徐氏 시부모에게 부양의 비용을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校費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官府가 방법을 세워 유지토록 하십시오.<sup>19)</sup>

비록 이 요청에 대한 결과는 없었지만, 끝까지 官府 감독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힘이 닿는 한 최후의 일각까지 그 직분을 다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3. 放足으로 學校設立을 쟁취하다

胡仿蘭이 남긴 絕筆書는 그가 시부모의 강압으로 죽은 兩大 原因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즉 “放足(전족을 품)과 學堂에 들어가려던 두 가지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언자들의 신분과 책략의 차이에 따라 보인 두 가지 원인에 대한 관심의 偏差였다. 이것은 晚淸의 社會 思潮와 變革의 實踐으로 인해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

사실 江蘇教育總會 이외에 胡仿蘭 사건에 힘을 가장 많이 쓴 것은 放足を 제창한 天足會(天足: 전족하지 않은 원래의 발)였다. 최초로 胡氏의 참사를 폭로한 宋康復은 곧 湖北天足會의 발기인이었다. 그의 報告書는 胡氏의 放足에 편중되어, 이를 致死의 主因으로 여기고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당시 上海天足會 會長을 맡고 있던 沈敦和도 宋의 글이 신문에 게재된 후 수차 청원과 간여를 하여 그 직분을 다했다.

1895년 4월 上海에서 성립된 上海의 天足會는 처음에는 西方여성이 창립하여 영국의 리틀(Mrs. Archibald Little)부인이 회장을 맡았다. 1906년

19) 「江蘇教育總會가 端江督에게 올리는 글」, 『申報』(1907.11.12).

11월 그가 즉시 귀국해야 했기 때문에, 중국인이 맡아 업무를 더욱 쉽게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슐를 “중국인에게 인계”하였는데, 沈敦和가 會長職을 이어 받았다.<sup>20)</sup> 沈氏는 幼年시절에 부친을 따라 上海에 이주하여 開化기풍의 영향을 받고 서양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며, “西學에 대해 특히 정통하여”<sup>21)</sup> 西方人士들과 많은 왕래를 하였다. 그는 天足會 업무에 더욱 열심이었는데, 開會 때에는 등단하여 放足を 권하는 연설을 했고, 동지들을 모아 上海 天足會女學堂을 창립하였으며, 부인 章蘭이 교장을 맡았다.<sup>22)</sup> 沈씨가 다시 후임으로 추대되니 실로 훌륭한 人選이었다.

上海天足會는 창립한 지 가장 오래 되어 각지 不纏足運動會의 대표로서 호소력이 강했다. 그 예로 宋康復은, 胡仿蘭이 “放足으로 인해 죽었으니, 무릇 不纏足會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追悼會 열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그는 湖北天足會에 서한을 보내 그곳에서 胡仿蘭을 추도하는 회를 열기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특히 “上海天足會가 여사를 위해 追悼會를 개최”할 것을 제청하였다. 그가 유독 上海를 중시한 원인은 아래에 있다.

上海天足會는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소재지 또한 中外 교통의 중심지이다. 만약 여사를 위해 추도회를 열 수 있다면, 여사의 가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클 것이다.<sup>23)</sup>

沈敦和는 宋康復에게 회신하여 추도회 개최 건에 대해, “본회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女士 사건 조사의 불확실” 및 “女士 사후 영예의 未獲得”으로 대중을 움직이지 못할지도 모르며, 또 “天足 앞날에 크게 영향

20) 林樂知 편집, 任保羅 譯, 『天足會 興盛 述聞』(『萬國公報』 184卷, 1904.5) 및 任保羅 譯, 『天足會 年會紀略』(『萬國公報』 216卷, 1907.1) 참조.

21) 沈毓桂, 『西學課程匯編後拔』, 『萬國公報』 4卷(1889.5).

22) 趙志清, 「天足會 회의 始末記」(『警鐘一步』, 1905.1.18) 및 任保羅 譯, 「天足會 제 10차 보고」(『萬國公報』 217卷, 1907.2) 참조.

23) 「宋康復 觀察이 教育總會에 보내는 답신」, 『時報』(1907.7.23).

이 있을 것<sup>24)</sup>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은 신분을 스스로 중시하는 표현이었다.

자신의 地位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中國天足會 회장으로 서의 沈敦和가 각지 不纏足會 회원들의 대표자이기도 함을 자각한 것으로, 胡仿蘭의 죽음에 대해 강렬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었다. 宋康復의 최초의 서신이 말간된 후 沈氏는 즉시 端方에게 글을 올려 극도의 분개를 나타내었다.

대저 풍습이 개방될 때 처음 시작은 쉽지 않아서, 왕왕 文明教育이 완고한 머리에 접촉하게 되면 서로 의견이 충돌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로막고 파괴하게 되어 목숨을 내놓게 되기까지 한다. 胡氏는 마음이 뜨거운 여성으로 몸소 먼저 발을 풀어 온 몸의 선도가 되고, 이로 인해 시부모를 거슬러 강압으로 非命에 갔으니, 심히 가엽다. 그리고 徐嘉楙부부가 모질고 잔인한 마음으로 인륜을 어기고, 악랄한 수단을 쓴 것은 더욱 머리털이 곤두서게 한다. 이 일이 해외에 전해진다면 西인들이 반드시 웃을 것이며, 천하가 듣는다면 모든 남녀가 다시는 天足の 일을 말하지 못할 것이니, 특히 天足會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沈敦和는 외국인사들과 왕래가 깊어 말이나 생각을 할 때 늘 洋人들의 반응을 고려했다. 그러나 나중에 날카롭고 엄숙한 말로 한 요구는, 사회 개선에 대한 의미가 컸다.

匹婦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크지 않으나, 進化의 바람을 저지한 해악은 큼니다. 감히 실정에 근거하여 탄원하건대, 督憲께서는 淮揚道에 신속히 지시를 내려 徐嘉楙 부부를 신문하여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엄중히 징벌을 내려 흉악하고 완고한 자들을 警戒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徐胡氏를 표양하는 상급의 은혜로운 글을 匾額(액자)에 써 반포해서 원혼을 위로하고, 開化에

---

24) 「天足會 宋仲札 觀察이 宋敦甫 觀察에게 보내는 글」(徐女士가 放足으로 죽은 일로), 『申報』(1907.7.31).



도움이 되게 하기를 바라는 바,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sup>25)</sup>

端方이 후에 발포한 遊街(조리돌림)와 榜示 등의 징벌 지시는,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 개화시키기에는 부족하므로” “匾額을 증여하여 표양”<sup>26)</sup>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바로 沈씨가 요구한 것을 따른 것이었다.

審案 과정에서 天足會와 江蘇教育總會는 함께 자발적으로 감독의 책임을 졌다. 사건 조사와 처벌을 지시하는 端方の 서찰이 6월 25일에 신문에 게재되기는 했으나, 10월 7일 沈敦和가 端方에게 올리는 청원서가 발표될 때에 이르러서야 “四方의 天足會 신사 숙녀”가 “학수고대하며 결과를 기다리느” 胡氏 案件을 審理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오히려 “懸案은 오래되었으나 결말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안건 판결을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처벌도 뜻밖에 가벼웠다는 소문이 있었다.

근래 조사원의 보고에 의하면 徐嘉楙는 재산이 많다고 한다. 兪 縣令이 신문하여 氏의 오빠 胡象九와 대질시킬 때도 말을 횡설수설했고, 또 胡氏의 여러 친필들을 날조하여 명예를 더럽히려 했으나, 兪 縣令은 일을 흐지부지하고 깊이 究明하지 않았으며, …… 또한 듣자니 徐嘉楙는 3, 4천 貫의 벌금으로耳目을 피하고, 이로써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다 한다.

이와 같이 가볍게 처벌하였으니, “여론이 떠들썩했던” 것도 이상할 것 없고, “幽魂을 위로하고 公憤을 펼치기”에는 부족했다고 여겨진다. 沈敦和는 이로 인해 “다시 벌을 과할 것”<sup>27)</sup>을 요구하였다. 이것 역시 江蘇教育總會가 사건의 정식 종결 후 端方에게 다시 審理할 것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소식이 없었다. 오히려 10월 25일자 『時報』에서 『沈陽胡女士 사건 종결』이란 短信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25) 「沈仲札 觀察이 端午節 江督에게 올리는 보고문」(沈陽 徐胡氏 芳(仿)蘭의 일로), 『申報』(1907.10.7).

26) 註 7~8)에 나누어 보인다.

27) 註 25)와 같은 10月 7日字.

일전에 본 縣의 俞縣令은 徐嘉楨의 원에 따라 밭 五頃의 벌금을 과하여, 女士를 위해 학당을 건립하고 胡仿蘭 女學堂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자 하였는데, 이미 江督의 전보허가를 받아 그대로 처리하였다. 그래서 상급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이로써 종결시켰다.

라고 지적되어 있어, 沈陽縣의 사건 종결보고는 端方の 비준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믿는 데가 있어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開明”으로 이름났던 淸나라 조정 大官 端方은 책임감 있는 명령과 엄격한 판결로 모습을 드러내고, 격양된 학계의 意向에도 순응하여 널리 성가를 얻었었으나, 이후 실무를 처리했던 부하 관리의 “大事縮小”의 작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究明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문장만을 썼던 淸나라 조정의 억지 改革의 보편적인 폐단이었다.

官方이 무성의하게 일을 처리한 것과는 뚜렷이 다르게, 최초로 7월 8일 蘇州에서 胡仿蘭을 위해 추도회를 개최한 江蘇放足總會는, 더 나아가 沈陽에 직접 가서 胡氏의 고향에서 추도회를 열도록 사람을 파견키로 결정하였다. 회장 謝長達 등 3명의 여사는 차와 배를 갈아타며 5일만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10월 2일, 胡仿蘭여사를 추도하는 대회가 縣城 山西會館에서 거행되었는데 참석자가 400~500명으로, 沈陽 縣令 俞都와 부인, 그리고 두 딸도 함께 참석하여, “一時의 성황”을 이루었다고 보도되었다. 謝長達 등은 기념활동을 틈타 放足運動을 확대하려 했는데, 이를 위해 추도회에서 “등단하여 연설하는데, 그 辯舌이 절묘하고 완곡하며 사리에 합당”하여 “듣는 이의 박수갈채”를 얻었고, 다음날은 전적으로 放足會 만을 개최하였다. 記者는 논평하여 “외진 小邑에 이 2-3인의 여걸이 나타나 연설을 하니, 귀를 울리고 머리를 한 바탕 뒤흔들어 놓았다. 지식을 늘리는 것은 前途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여사 일행의 접대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沈陽의 不繼足會 발기인인 吳鐵秋였다.<sup>28)</sup>

28) 『江蘇放足總會來翰』, 『新聞報』(1907.11.3) 및 『沈陽追悼會紀盛』, 『時報』(1907.10.25).

각지 放足會가 胡仿蘭을 강제로 “放足에 殉死”<sup>29)</sup>하게 한 徐氏 부부의 범행을 한결같이 성토했던 것과 다르게, 자원하여 沭陽에 가 상세한 정황을 조사한 젊은 학생들은 단지 격분한 마음에, “이 사건은 江北의 女學前途에 관계가 심히 크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 胡氏의 “女學 창건 의지”에만 편중하였다. 비록 “도대체 女士는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에 대해 탐방했을 때, “여러 村老들에게 물었더니, 放足과 洋學堂에 들어가려던 두 가지 일로 시부모를 노하게 했다고 모두 대답했다”라고 하기는 했으나, 조사원 李塤은 깊이 연구한 후 後者가 致死의 主因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조사하니 여사가 放足한 것은 이미 2년이 되었다. 시부모는 처음 받을 풀었을 때는 위협하지 않았으나 지금에 이르러 학대를 시작했다는 말도 있다. 여사의 뜻은 女學을 창건하는 데 있었으니, 올 봄 兩江의 女子師範이 학생들을 모집하여 여사는 가서 응시할 계획이었다. 시부모는 힘껏 막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여사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시부모는 氏의 洋敎의 마음이 끝내 변치 않자,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조상을 욕되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氏를 죽일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욕하는 것에 불과했으나 여사가 참아내자 나중에는 학대가 날로 심해져 갔다. 여사는 시부모의 죽이려는 마음이 절대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평소 애 읽던 책들을 계속 오빠의 집으로 가져갔다. 시부모는 氏가 책을 가져갔으니 앞으로 반드시 몰래 도망갈 것이라 여기고, 禍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氏를 밀폐된 방에 가두고 약을 주어 자살하기를 명령했다.

그래서 胡仿蘭이 독약을 먹은 후 그 딸이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해독약을 찾아 구해 줄 것을 빌었”으나, 오히려 성난 목소리로, “네 어머니는 네 작은의삼촌(上海 東城師範을 졸업한 胡軾鈞으로 현재 집에서 靜芝와

29) 『中國新女界雜誌』 5期(1907.6)는 奉天 『通報』의 「宋康復觀察이 沭陽 徐氏 子婦가 放足에 殉死한 일로 江蘇總會에 보낸 편지」를 轉載하며, 아울러 평론을 하고, 눈을 비비게 하는 「몸소 放足에 殉死하다」를 표제로 삼았다.

冷仙 자매를 가르치고 있던) 손에 죽은 거다. 네 작은외삼촌이 洋書를 사서 네 어미에게 읽으라고 주지 않았다면 내가 왜 죽이려고 했겠느냐? 너는 네 삼촌에게 가서 에미를 구해 달라고 해라, 내게 그러지 말고”<sup>30)</sup>라고 말했다. 이것은 徐母가 가장 용인할 수 없었던 점이 胡氏가 新學 서적을 좋아한 것과, 女學堂에 들어가려 했던 것이지, 전족을 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天足會와 심지어는 各地의 學務를 추진하던 江蘇教育總會까지도 모두 ‘학문에의 뜻’은 가볍게 넘겨 버리고, 胡仿蘭의 放足에 대해서만 대서특필했는데, 이는 실은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판결 근거인 『大清律例』을 보면, 徐氏 부부가 며느리를 강제로 죽게 한 것을 판결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채택할 법률조항이 없었고, 상투적으로 쓰던 刑量 표준 또한 사형죄가 되지 않았다. 최초로 刑律로 그 죄를 처벌하고자 제의한 「沈陽 徐氏 子婦가 시부모에게 강제로 죽은 사건을 논함」의 필자는 “인정은 접어두고 國法을 논하자”고 했는데, 그 결론은 아래와 같다.

율법을 보면 尊長이 비속을 모살하면 살인자는 鬪毆條 內的 尊長故殺卑俗律에 의거하여 杖 60과 1년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율법에 의거하여 논하면, 徐氏 부부는 마땅히 故殺卑俗刑의 子婦 학대죄로 징계해야 한다. 더구나 기풍을 저해하고 女學의 마음을 박해했으니 그 죄가 더욱 크다. 비록 율법은 넘어서지만 重刑에 처하여, 우매하고 완고한 패륜자를 훈이 나게 하는 것 또한 지나치다 하지 않을 것이다.<sup>31)</sup>

전통적 “忠孝”관념은 尊長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모살을 하더라도 형벌을 감면해서,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시해하는 죄는 용서가 없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端方的 서찰이 비록 徐氏 부부의 행위가 “故殺과 같다”고

30) 註 14)와 같음.

31) 「沈陽 徐氏 子婦가 시부모에게 강제로 죽은 일을 논함」, 『新聞報』(1907.6.16).

지칭하기는 했으나, 그 처벌한 세 가지의 징벌 방법은 단지 칼을 씌워 조리 돌리고, 죄상을 榜示하여, 그의 명예를 제거하라는 것뿐이었다. “시부모가 자부를 살해하는 것이 율법에 死刑의 벌이 없음”을 안 正義의 발언자는 현행 법률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고, 또 “가벼운 징벌은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사회에도 이익이 없다”<sup>32)</sup>고 여겨, 徐家 시부모가 放足を 저지한 죄만을 추궁하였다.

清代는 立朝 이후 끊임없이 전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滿洲人은 본래 전족을 하지 않는 天足이므로, 禁足은 바로 漢族 부녀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發令한 지 200여 년이 되어 晚淸時代에 이르러서도 발을 싸는 풍습이 사라지지 않자, 선교사와 維新派가 연합해 발동한 不纏足運動의 도움을 빌어 낡은 풍속을 고치려고 하였다. 이 기간 중인 1902년 2월 1일, 光緒皇帝가 慈禧太后의 懿旨를 받들어 발포한 조서는 비록 몇 마디 말에 불과 했지만, 각지의 <전족금지회>에 의해 대대적으로 이용되는 법률근거가 되었다.

漢人 부녀자가 전족을 한 유래가 오래되어 조물주의 調和를 상해하였다. 이후 관리들은 필히 완곡하게 권유해서 집집마다 알게 하여 구습을 점차 제거하기를 바란다.<sup>33)</sup>

이후 不纏足會 조직은 당당하게 “聖旨를 받들어 放足함”<sup>34)</sup>을 선언하였는데, 浙江의 新學文家 宋恕는 그 해에 즉시 「聖旨에 따라 부녀자의 전족 해방을 완곡하게 권유하는 글」을 썼고, 天津公益天足社 설립자 劉孟揚도 「전족금지를 권하기를 청함」이라는 長文을 썼다.<sup>35)</sup> 당시 湖北 巡撫

32) 註 23)과 같음.

33) 『詔書』, 『京報』(1902.2.1).

34) 『女報』(『女學報』) 1期(1902.5) “새 소식”欄에 「聖旨를 받들어 放足하다」라는一文이 있다.

35) 이 두 문장은 『宋恕集』 上卷(北京:中華書局, 1933) 및 『大公報』 1904年 1月 5~10日字에 나뉘어 보인다.

를 맡고 있던 端方도 聖旨을 받들고 신속하게 「부녀자가 다시는 전족하지 말기를 권하는 말」을 발표했다.<sup>36)</sup>

비록 淸 王室의 纏足禁止를 원하는 조서가 진지하게 집행된 적은 없지만, 그러나 胡仿蘭 사건을 처리할 때는 오히려 유력한 무기가 되었다. 端方의 태도를 잘 알고 있던 江蘇教育總會는 첫 번째 上書에서 이러한 말로 그를 감동시켰다.

尊長이 卑俗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에 明文이 있습니다. 放足의 聖旨을 받들었으니, 천하의 옳지 못한 짓을 범한 徐姓 시부모가 法規를 위반한 짓을 벌주더라도, 또 무슨 말을 하겠는가.<sup>37)</sup>

前罪는 모두 지나가서 重刑을 다시 과하지 않을 것이니, 後罪를 主攻 擊 방향으로 하면 가히 큰 형량에 처할 수 있으며, 명분도 바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해한 輿論界는 이후 대부분 이를 따라 뜻을 정하였다. 宋康復은 누차 江蘇教育總會에 서신을 보내 胡仿蘭의 죽음을 슬회하였는데, 이미 말투를 바꿔 “聖旨에 따른 放足으로 시부모에게 피살되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時報』에 연속적으로 실린 胡仿蘭을 읊은 여러 詩作들도 “聖旨 違背”를 공격의 重點으로 삼았다. 詩作의 발단은 宋恕가 투고한 詩에서 비롯되었다. 宋은 『時報』에 실린 胡仿蘭 사건의 경위를 읽고 격동하여 「海州 胡普芳 烈女仿蘭을 애도함」이라는 3首의 絶句詩를 지었는데, 첫째 시는 아래와 같이 시작된다.

괴이하도다 왕을 받들어 죽으니, 세상의 수많은 모래가 모두 놀라는구나.

중국이 專制라고 누가 말했나, 시부모의 위세는 중하고, 법의 위엄은 가벼

36) 「鄂撫(湖北巡撫) 端方帥가 부녀자에게 전족하지 말기를 권하는 말」, 『女報』(『女學報』) 1期.

37) 註 11)과 같음.

우니.

『平等閣詩話』에서 宋의 작품을 초록한 『時報』 社主 狄葆賢은 胡仿蘭 사건의 緣起를 서술하고 또 총괄했다.

胡女士는 의연하게 放足を 위하여 죽었다. 江蘇學界는 端制軍에게 그 시부 모가 聖旨를 위반한 죄를 징계할 것을 上書하였으니, 그 사회에 끼친 영향이 아주 컸다.<sup>38)</sup>

聖旨를 위반한 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學界는 그 징벌 방법에 의견을 일치하였으니 곧 “벌금부과로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다.

動議者는 宋康復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것에 착안하여 그가 제출한 重罰 조치는 “徐氏에게 거액을 부과하여 女學을 건설하자”는 것이었고, 아울러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徐는 부자로 유명하여 재산이 數萬金이라, 學界의 고발에는 본래 이로써는 죄하지는 설이 있다. 沭陽사람은 재산을 생명보다 중히 여기므로 엄중히 論罪 하여, 그 자산으로 公益의 事業을 하면 타인을 警戒하는 수범으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여사의 다하지 못한 뜻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公益事業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不繼足會를 설립하는 것이고, 하나는 女學을 설립하는 것이다. 단지 不繼足會 하나만으로는 실로 이 같은 거액이 無用하니, 역시 女學을 설립하여 여사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正當不變의 방법일 것이다.<sup>39)</sup>

江蘇教育總會는 이에 대해 깊은 찬동을 표하고, 端方에게 轉報할 때 이것을 포함하여 宋氏가 논의한 “各節의 事後처리에 필요한 방법”들을

38) 『平等閣詩話』, 『時報』(1907.8.29). 宋恕의 詩는 발간될 때 제목이 없었는데, 『宋恕集』 下卷에 의거하여 첨가함.

39) 註 23)과 같음.

진술하였다. 天足會 쪽에서도 沈敦和가 宋康復에서 서신을 보내 “각하가 기초한 시부모 징벌 방법과 벌금으로 女學堂을 建造하자는 것은 愚見과 심히 합치합니다”라고 말했다.<sup>40)</sup>

이 벌금방법은 官方에서도 받아들여졌는데, 重罰 액수에서는 民間과 官府의 차이가 극히 컸다. 宋康復은 벌금이 “학당 설립 비용에 불충분하지 않도록 너무 적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李塤 등의 학생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남편 집안 재산의 1/2을 떼어 沭陽女學堂을 설립한다”<sup>41)</sup>라고 설정하였다. 그러나 懸案이 오래도록 未決되자, 沈敦和가 端方에게 소식을 통보하며 권고하는 보고문 중에는 이미 官府의 輕罰의 동태가 드러나 있었다.

조사하니 徐의 재산은 전답이 30여 頃으로 시가로 5~6萬金인데, 계약증서를 조사하니 겨우 17頃으로 단지 그 반에 이릅니다. 兪 縣令은 조사 물수 이후, 다시 사람을 파견하여 명확히 조사하라 지시하지 않아, 일시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沈氏는 “이 일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憲台에게 실제에 맞게 검사하기를 보고하고, 縣에 지시를 내려 徐嘉楸를 다시 신문하여 처벌하고, 다시 벌금을 부과해서 학교 건립의 경비를 충당하여, 권선징악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간청”하였다.<sup>42)</sup> 그러나 최후에 이 사건은 단지 “徐嘉楸가 현재 전답 5頃의 벌금을 내고자 한다”로 가볍게 결말이 났다. 비록 江蘇教育總會가 謝長達의 調查報告를 근거로 강력히 투쟁하여, “벌금은 헛되이 이름만 있고, 학당 설립은 지속하기 어렵다”<sup>43)</sup>고 지적하기는 했으나, 원래의

40) 『江蘇教育總會가 江督 端午帥에게 올리는 글』(徐씨 子婦가 시부모에게 강제로 죽음을 당한 일로) 및 『天足會 沈仲札 觀察이 宋敦甫 觀察에게 보내는 글』(徐女士가 放足으로 죽은 일로).

41) 註 13)과 23)에 나뉘어 보임.

42) 註 27)과 같음.

43) 『沭陽 胡女士 사건 종결』, 『時報』(1907.10.25). 또 註 19)와 같음.



판결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5項의 액수는 민간단체가 요구한 17~8項과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돈으로 학교를 설립하기는 당연히 충분치 못했다.

放足を 논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女學 설립으로 끝맺음했는데, 최후의 결과는 비록 처음의 희망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민간단체들은 오히려 女子敎育을 귀결점으로 하는 일치된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晩淸의 전족금지와 女學堂은 본래 一體關係였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학교는 放足を 확대하는 기지였고, 放足은 敎育을 받아 유용한 人才가 되는 귀착점이었다. 전족 풀기를 권고하는 자는 그래서 왕왕 一身에 두 가지 임무를 맡았는데, 沈敦和가 天足會女學堂을 설립한 것과 謝長達이 蘇州振華女學校 교장이 된 것은 모두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의 女學 증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었다. 吳鐵秋가 宋康復의 공덕을 칭찬할 때,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이 점을 증시한 이치가 여기 있다.

宋教甫 觀察은 우리 沈陽에 큰 공이 있다. 그는 胡女士를 위하여 雪冤하여 沈陽의 죽은 人心을 흔들어 沈陽 女學의 새싹을 孕胎하게 해 주었다.<sup>44)</sup>

힘써 배우고자 하던 목적이 달성되어, 胡仿蘭도 헛되이 죽지 않은 셈이다.

#### 4. 先覺에서 庸俗으로 變化

晩淸사회의 극렬한 변동과 신문보도의 신속함은 작가들에게 현실감을 쉽게 느끼게 하여, 이전 각 시대의 작품들보다 더욱 생활에 접근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대사건의 발생은 우선 신문의 영향과 伏線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로 인해 문학창작의 붐이 이루어지게 된다. 胡仿蘭의

---

44) 「申報 社主에게 드리는 서한」, 『申報』(1907.8.15).

죽음은 곧 이런 例證을 제공한다.

胡仿蘭에 관한 문자체제는 많아서, 작가들은 이미 전통적인 詩文을 내놓았고, 또 각종의 계몽시키기 쉬운 통속문체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언급했다. 창작과 발표의 목적은 창시자 宋恕가 말한 것이 극히 명확한데, 그가 『時報』의 편집자 陳詩에게 보낸 편지는 이러한 정황을 說破했다.

貴報에 게재된 海州 胡普芳 사건을 읽고 悲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기 3首의 絶句를 지어 선생께 보내며, 아울러 저 대신 狄楚公께도 올려 一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平等閣詩話』에 등재하여 海内の 詩人들이 일어나 화답하게 할 수 있을지요. 모두 함께 입을 모아 노래하고 애도하여 이러한 비참한 풍습을 만분의 일이라도 만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sup>45)</sup>

狄葆賢은 宋의 詩를 발간하는 동시에, 그 뜻을 받들어 특별히 더 설명을 하여, “各省의 인사들이 함께 일어나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문체와 韻에 구애 없이 본 회관에 보내시면, 신문에 게재하여 기풍을 널리 알려서, 골목의 부녀자들이 서로 전하도록 노래로 만들면 전족의 陋習을 개혁하는 데에 혹 一助가 될 것입니다”<sup>46)</sup>라고 했다. 문학을 사회개선을 추진하는 도구로 삼은 것을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후 徐澹廬·秦縵卿·甘泉常·瘦蝶·陳鶴柴 등의 詩篇들이 연이어 『時報』에 발표되어 이구동성으로 胡仿蘭을 표창하고 徐氏 시부모들을 성토했으니, 바로 이 호소가 야기한 직접적인 반향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것은 舊體의 詩여서, 부녀자들이 전하여 부르도록 노래로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통속적인 戲曲과 小說 작품들이 출현하여 그 뜻을 이었다.

『足窻』은 蔣景緘이 지은 短雜劇 『俠女傳』의 1막으로, 1909년 5월 출판된 『揚子江小說報』 제1기에 初版되었다. 劇作은 胡仿蘭이 죽기 전의 일

45) 『陳子言에게 드리는 글』(1907.8.16), 『宋恕集』 上卷, p.632.

46) 註 38)과 같음.

부분을 취하여, 胡氏가 간히고, 老僕 徐씨 할머니가 오빠 집에 가서 소식을 알리고, 보내 온 가마가 徐母의 거절을 당하고, 徐母가 기필코 胡氏를 死地에 처하고자 하고, 胡氏가 죽을 뜻을 결심하는 것들을 연출했다. 극중의 胡仿蘭은 비록 자녀에 대한 정이 깊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등장하여 부르는 “간혀 있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 文明의 장애를 깨뜨리지 못하네” “가시가 봉황의 장애가 되어도, 헛되이 다시 하늘에서 날기를 바라는구나” “죽든 살든 모두 나의 의지를 굳게 지키려네” 등은 여전히 剛強한 氣를 드러내어, 胡氏의 絶命書를 읽는 감정과 완전히 들어맞는다. 그리고 소위 “비참한 역사, 中國은 悲壯하다”<sup>47)</sup>라는 말은 연극을 휩싸고 있는 비장한 분위기를 요약해 내고 있다. 작자는 胡仿蘭을 俠女의 대열에 놓았는데, 이는 이치가 없지 않다.

蔣景緘의 작품은 沈敦和의 2년 전의 胡仿蘭의 事迹을 “戲劇으로 극화하여 연극계에 부쳐 영원한 기념으로 삼고, 아울러 一般社會群에게 여성계에 女士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면, 족히 느끼는 바를 제공할 것”<sup>48)</sup>이라고 했던 희망을 만족시킨 것 같았다. 그러나 雜劇 체제의 몰락과 이 형식이 근대에 이미 案頭化(탁상용)하여 문인들이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는 도구로 몰락된 것을 감안한다면, 『足冤』이 沈氏의 요구를 결코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晚淸에서 胡仿蘭 故事를 진정한 通俗文學으로 저술한 것은 첫째가 『中國의 女銅像』이었다.

이 책은 “女界小說”로 분류가 명기된 작품으로 모두 20회이고, 上海의 改良小說社가 宣統 元年 7월에 발행했는데, 앞에 20폭의 그림이 있으니 즉 매회 한 그림씩인 것이다. 작자는 관심 있게 胡仿蘭 資料를 수집한 것 같은데, 권말 부록의 沈陽 縣令 俞都와 부인의 哀悼 對聯 및 胡氏의 遺札 3통은 代筆 같지 않으니 웅당 원작일 것이다. 俞 縣令의 애도 대련은

47) 阿英이 編輯한 『晚淸文學叢抄』(傳奇雜劇卷) 下卷(北京: 中華書局, 1962)에서 인용.

48) 註 24)와 같음.

모두 烈女의 多才함을 전하여, 추도하는 깊은 정을 읊적여, 流陽에 빛을 더하네. 부끄럽다 長官이 덕이 없어, 깊은 원한 말할 수 없게 만드니, 海內에 議論이 분분하게 하였네.

라고 되어 있어, 어조가 地方長官이 직접 언명한 것에 잘 들어맞는다. 胡仿蘭의 세 서찰은 그 생전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여동생 靜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둘째 남동생이 공부하고 돌아와 女學塾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여러 여동생들과 질녀들이 모두 향학의 뜻이 있어 미칠 듯이 기쁘다. 몸에 양 날개가 나지 않아, 집에 가서 여러 자매들과 만나지 못하는 게 한이다”라고 말했고, 셋째 언니 疇粉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제가 들으니 학당에 들어가는 것은 百益으로 一害도 없다고 합니다. 저도 본래 이 뜻이 있으나 위로 시부모가 계셔 자유롭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작은 올케 冷仙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올케가 放足에 대한 어리석은 이 언니의 말이 극히 옳다고는 여기지만, 반드시 남편이 집에 온 후 실행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올케는 어리석기도 하지, 왜 그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여 일을 그르치려 하는가! 요즘 吟香 큰 올케가 이미 放足한 것을 알았는데, 작은 올케는 왜 함께 하려 하지 않는가? 放足團體가 클수록 사람들의 笑罵가 두렵지 않은 것이다. …… 빨리 실행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先覺者 胡氏의 放足과 학교 설립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강인하고 열성적인 개성을 모두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小說의 작가가 초록한 書札을 믿을 수 있는 증거물로 보는 것은, 편지와 작품간에 모순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소설에는 허구가 많아 오히려 편지의 진실성을 반증한다. 신문보도와 여러 서신 중에서 똑똑히 알 수 있는 것은, 저 마음을 다지고 앞서간 女志士가, 소설작가의 필봉 하에 서는 이미 그 서술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第一回의 말미에는 소설속 주인공 胡仿蘭이 결심한 基調를 “女學에 열성적이고, 禮法 守舊와 新知識 열기를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그

를 “첫째의 文明女子”임을 강조하며, “여성계에서 그를 배울 수 있다면 女學은 가히 정말로 진보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친구를 만나 女銅像을 이야기 함』). 확실히 소설이 다시 그린 胡仿蘭 형상은 이미 작가 심중의 理想的 여성의 표본이 되어, 작품 제목을 『女銅像』으로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小說의 작가는 그리하여 반복하여 胡仿蘭의 ‘옛것을 지키며 새로운 것을 따름’을 역설하여, 新女性으로서 舊道德을 따르는 일면을 강조하였다. 胡氏의 출신을 서술할 때 “18세가 되어 출가할 때, 그의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곧은 것은 말할 것 없고, 이미 학문에 기초가 있어 大義를 깊이 이해하였다. 시집에 이르자 三從四德과 역대 여인들의 언행을 따르며 완고한 시부모를 모시고, 어리석은 남편과 一男二女를 낳으며 양순하게 8-9년을 살았다”라는 것을 특히 내세웠다(第二回 『형제를 보내며 舊家庭을 담론함』). 이것은 자신이 禮法을 준수했을 뿐 아니라 이로써 딸도 교육했던 것이다. 소설 속에 묘사하고 있는, 胡仿蘭이 딸을 위해 강술한 “修身” 두 글자에 대한 한바탕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작가의 의기양양한 문장인 것이다.

무엇을 “修身”이라 하지? 너는 한 여자가 일생동안 살아가려면, 반드시 여덟 글자를 중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여덟 글자는 “忠孝節烈, 禮義廉恥”란다. 합해서 이 여덟 글자야, 열심히 해야 한다. 이 여덟 글자를 외우면서 험참 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여자라고 칠 수 있지.(「이웃 부인도 改良케 하여 점차 氣風을 열다」)

작가는 당시의 新式 傾向 여성에 대해서 확실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 胡仿蘭을 표양하는 많은 말들도 어떤 것은 목적 없이 말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胡氏가 “三綱五倫 도덕에 관해 오히려 여전히 준수하고 奉行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았으니, 어찌 저 단지 몇 권의 교과서를 읽고 금테 안경을 쓰고 가죽 구두를 신은 것만으로 스스로 新中國의 신여성이

라고 자임하는 무식한 여자와 비교하겠는가. 단지 西法 말만 듣고 당신과 우리나라의 기풍이 크게 맞지 않는다며 경솔하게 행동하고, 禮義廉恥가 여자에게 절대로 없어선 안 된다는 舊禮法만 들고, 자세히 그 뜻을 분별하지도 않으면서, 오래 시의에 맞지 않는 진부한 말이라고만 한다” 등이다. 작자는 이처럼 “가볍게 新·舊 두 글자를 高低로 나누”고, “中·西와 新·舊를 풍속과 시의를 따르면서 하나로 융합시키지 못하”는 것은, 곧 守舊者が 더욱 新學과 新女學을 싫어하므로 해 진보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했다.(第四回 「공부하기를 권유하여 부부가 反目하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실은 작자)이 新學을 담론할 때는 늘 ‘別解’를 만들었다. 그녀(그)의 “男女平等”에 대한 이해는 “이 평등이라는 두 글자는 여자와 남자가 권리를 다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學問이 있으면 남자와 함께 국민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평등’ 두 글자의 실제 主旨이다. 만약 여자가 학문 기초가 없어 평등 두 글자를 오해해서 內外 구분 없이 일어난다면, 사회에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웃음거리가 생겨날 지 모르는 일”이었다. 결국, 여자는 역시 “忠孝節烈, 禮義廉恥”를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녀(그)는 반문하여 “만약 이 여덟 글자를 따라 살지 않으면 어디 가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第十一回) 舊道徳을 新學問의 기초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책 속에 이미 충분히 분명히 설명되어 있다.

심지어 輿論界가 致死原因으로 지적한 放足を 말할 때도, 이 胡仿蘭은 遺書 중에서 말한 ‘현명한 사람을 보면 배우고자 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는데, 비록 자신은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타인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말하기를,

일반적 여자로 말하자면, 나이가 어리면 물론 더 진족할 이치가 없다. 20세 전후에서 이미 진족을 한 사람에게도 굳이 放足이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다. 옛 말에 “바쁜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 몇 천년래의 누습을 어찌 3년 5년에 깨끗하게 개혁하겠는가? 불쌍한 한 여자가 어릴 때 이미

전족의 고생을 했는데, 지금 다시 放足하는 고생을 하라고 억압하여, 몸을 약하고 또 약하게 만드느니,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 말은 성년여자의 放足은 오히려 그만두고, 나아가 이미 전족한 사람의 放足은 人道에 어긋난다고 질책하는 혐의가 있으니, 결코 현실 중의 胡仿蘭이 용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放足을 “外表的 노력”이라 칭하며, “上中下 3部類의 여자들로 하여금 이로써 화합하여 일제히 작은 발을 크게 늘리면, 중국이 文明하고 富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였는데, 마치 頑固派가 不繼足運動에 대해 공격하는 것 같다. 주인공의 放足도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해석하고 있다. 女學堂 설립을 준비하며 “女學의 진보와 퇴보는 모두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 반드시 몸소 모범을 보여야 비로소 ‘師範’이라는 두 글자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天足會의 규정을 보면 天足會가 아니면 學堂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발이 조그만 사람들이 天足會學堂의 교습을 하면 무슨 꼴이 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放足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나의 放足은 유행 때문이 아니고, 女學의 前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放足하는 것이다.”(第九回 「禁烟 條例에 따른 변명 宗旨」) 설령 第十三回에 이르러 “胡女士가 정통성을 밝히는 연설을 할” 때 대중에게 널리 放足을 권한 것을 “제일단계의 노력”이라 했고, “西國의 良法을 배워” 여자가 널리 교육을 받게 하여, 여성계를 한 단계 오르게 개선시키는 수단으로 삼자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것이 작자의 진정한 의견임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긍정적으로 新·舊를 융합시키기 위하여 소설의 작자는 또 고의로 시간의 순서를 전도시켜 놓았는데, 1907년 같은 해에 사망한 두 명의 여성, 즉 胡仿蘭과 秋瑾을 한데 놓고 상호 비교하였다. 秋瑾은 7월 15일에 재난을 당하여 胡仿蘭보다 3개월 늦다. 대략 그 해에 『秋瑾遺事』一書가 출현했는데, 뒤에 부록으로 胡仿蘭에 관한 “江蘇教育總會가 端午帥에게 올린 報告書 및 女士가 울케에게 남긴 원본 편지”<sup>49)</sup>가 있어, 두 사람이 사후에 우연히 偶合하게 한 가능성이 있다. 소설의 여주인공은 秋瑾에 대

해 원래 무척 감복하여 스스로 투서를 하여 同道의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감금된 마지막날 徐씨 할머니가 몰래 보내 온 秋瑾이 피살된 소식이 실린 신문을 읽고, 秋瑾이 留學을 위해 “무모하게 도덕을 배반하고, 모범으로 삼을 수 없는 야만적이고 자발적인 일을 했”고, “의연하고도 결연하게 남편과 헤어진” 것을 알고는, 秋瑾에 대한 평가가 一落天仗하였다. “當代之 女宗主”이며 “女性界의 偉人”이 한갓 이러한 일로 인한 것이라면 “女性界의 罪人”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심지어는 “이런 구실을 씌워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도 아무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없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가장 그를 傷心하게 한 것은 “秋女士 같이 이렇게 명예가 있는 인물도 新’字를 향해 달려갈 줄만 알고, 자신의 德育·體育과 사람 도리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綱常을 무용지물의 舊物로 여겨 깨끗하게 내던져 버린” 것이었다.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의 과거 선택에 대해 懷疑를 금할 수 없어 상심하고 절망하여 죽기를 원했다. 작자의 필봉 하에서, 秋瑾에 대한 실망이 胡仿蘭을 죽음의 길로 가도록 독촉한 主因이 되고 있다.

가련한 나는 위로는 야만적인 압제가 있고, 안으로는 진실되게 학문하는 사람이 없어, 헛되이 유명무실한 사람을 仰慕하며 몇 년이나 春夢을 꾸었으니, 또 무슨 압제를 벗어나고 자유롭기를 바라겠는가. 한 손만으로 여성계를 개명시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겠다. 아직 순진한 天足提倡만 남아 있고, 熱誠女學의 허명만 세상에 있구나.(第十六回 『文明에 절망하여 두려움 없이 죽다』)

이같이 胡仿蘭의 죽음이, 이 新女性의 “禮法守舊”를 위한 것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으며, 改革事實은 아까워하지 않고 人物原型을 왜곡하니, 그 사실을 이해하는 독자들이 수궁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본래 독자층을 新學知識이 많지 않은 시민을 위주로 했다는 것

49) 『秋瑾遺事 出版』, 『時報』 광고(1907.8.9).



을 고려한다면, 작자가 胡仿蘭을 개조한 것은 바로 대중의 요구에 적응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中國의 女銅像』이 通俗文學으로 인정받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新舊交替의 과도시기에 처했던 선각자들은 왕왕 보통 민중들에게 이해되지 못하여 군중 속의 고독자가 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다. 그리하여 胡仿蘭은 新聞記事에서 小說에 이르기까지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거쳐야 했던 것이다.

신문보도는 그 문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능한 한 기발한 주장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을 흡인하지 못하고 社會潮流를 인도하지 못한다. 또한 그 關心이 사건의 결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徐氏시부모의 잔인함만 더욱 강조하고, 新女性 胡仿蘭에 대해 쓴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소설은, 비록 晚淸시대에 이미 先進人士들이 “改良群治(社會制度를 개혁하여 良好한 社會로 만드는)”의 重任을 부여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通俗文學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오히려 가장 효과 있는 啓蒙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유력한 증명이 된다. 『中國의 女銅像』은 胡氏를 주인공으로 하고 개인의 체험을 大要로 하였는데, 서술한 내용과 闡명한 이치가 독자들의 지식 수준과 도덕 수준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놔둘 수 없었다. 庸俗化는 通俗小說이 이러한 현실적 題材를 처리하는 상습적인 방법이다.<sup>50)</sup> 原型을 변화시켜 胡仿蘭을 ‘新中守舊’의 인물로 그려내어, 대중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했고, 독자 측에서는 또 ‘守舊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中國의 女銅像』이 표현한 경향을 晚淸사회 의 보편적인 意識으로 보고 싶으며, 그 인물 사상을 비평하는 것에서도 물러나는 동시에, 작자가 점진 속에서 개혁하고자 했던 苦心 또한 이해할 수 있다.

---

50) 靜觀자가 지은 소설 『六月霜』도 秋瑾의 形象化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 Abstract

### From News to Fiction : A Study of Hu Fanglan's Story

Xia, Xiao-Hong

This paper will explicate certain social and cultural changes during the late Qing period, by following an incident in 1907 when an old couple in Shuyang County of Jiangsu Province forced their daughter-in-law, Hu Fanglan, to kill herself by poison.

Subsequent developments demonstrated the tremendous influence of early-modern news media upon public opinion. It was the sway of imported Western values over local ethical standards that forced the death of Hu out of the restricted space of kinship rules into the arena of the press, transforming it into a social drama that attracted wide-ranging public comment, and finally into a formal legal case for official inquiry.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the Jiangsu jiaoyu zong hui (Headquarters of the Jiangsu Education Society) and Zhongguo tianzu hui (Society of Heavenly Feet in China), acting as representatives of public sentiment and watchdogs against the authorities, illustrated the energetic participation and substantial power of civil associations in local affairs in early modern China. When student organizations insisted that Hu Fanglan's death was due to her determination to go to a girl's school, their claim was actually at variance with the positions taken by these two societies, who forcefully publicized her parents-in-law's repressive reaction to Hu's unbinding of her feet as the reason for her death. These differing claims reflected a divergence of strategies among progressive groups. The two societies sought to utilize an imperial decree that encouraged the unbinding of girls'

feet, to inflict severe punishment on the parents-in-law for violating 'the emperor's will', with the aim of building up pressures against foot-binding.

The novel 'Bronze Female Statue of China' based on Hu Fanglan's story, on the other hand, offers a typical example of how popular literature treated such figures at the time, lending them a less provocative and more conventional image. Nevertheless, within the generally conservative handling of the story in the novel, here and there certain new ideas and understandings come to the surface, that merit close attention.

